

호남 태양광 출력제어...지역민 강력 반발

개인 사업자 "전력 생산 잘되는 4월 제한에 파산하게 생겨" "정부 잘못에 왜 사업주가 피해를 보나"...보상안 마련 촉구

정부가 다음달부터 호남지역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것(광주일보 3월 27일자 9면)과 관련, 지역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력 당국이 광주를 찾아 개최한 설명회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호남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오는 4월 시작되는 출력제어에 대해 "이것도 못 갖고 파산하게 생겼다"며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정권의 호남차별이라는 비판마저 빚발쳤으며 발전사업자들의 고성에 설명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주관하는 '기관통합 불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남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 100여 명과 전력당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당장 출력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민들이 대거 참석한 까닭에 준비된 좌석이 부족한 나머지 여분의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설명회 행사장 내부는 시작에 앞서 '태양광발전소 강제 출력정지(가동중단) 결사반대', '정부가 장려한 태양광! 보상없는 강제 출력정지 웬말이냐'

나!' 등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실수는 공직자가 피해는 사업자?', '책임자 처벌' 등 손팻말을 들고 반발했다.

설명회는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본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계통혁신과장이 나서 이번 설명회를 연 취지에 대해 안내한 후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1시간 상당 예정된 설명회는 20분 만에 중단됐다. 설명회 도중 한 참가자가 "원전을 중단하면 되지 왜 개인재산을 중단하냐"며 "정부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 세금까지 냈는데 왜 하루 아침에 피해를 봐야 하나"고 토로했고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이윽고 고성까지 오가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번 출력제한 조치 중점 지역인 신남원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출력제한 조치에 대해)정부의 출력제한 취지를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사업주들이 파산해야 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설명회는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보상 안을 마련하라"고 소리쳤다. 각기 불만에 가득찬 참가자들은 진정시키기 어려운데다, 애시당초 정부의 대책이나 보상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아닌 탓에 설명회는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 단체들이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태양광발전 출력정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봄철(3-5월)은 전력 생산이 잘되는 계절로, 대다수 은행 빚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투자한 사업자들 입장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출력제한 조치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해남에서 2만kW 설비를 운영 중인 A(85)씨는 "노후용으로 자본금과 대출을 더해 총 20억원을 투자했다"며 "한 달에 원금 이자를 더하면 1200만 원을 내야 한다. 수익이 좋을 때 달에 2000만원 수익을 내는데 4월부터 출력 제한이 들어가면 원금 갚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3.5%대이던 대출 이자가 지난해 4.8%까지 올라 힘들다고 했다.

대지구입비용, 태양광설비 설치비 등 총 13억원을 투자해 7500kW 용량의 설비를 운영 중인 B(78·장성군)씨는 "8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SMP 상한제로 고작 한 달에 300만원 수익을 냈다"며 "호남 지역 출력제한은 윤 정권의 호남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가 종료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앞에서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정부의 태양광 출력정지에 따른 법률검토를 기반으로 빠른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력 수요가 적은 오는 4월부터 호

남·경남에 강제로 태양광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는 없는데 과잉 공급될 경우 전력망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적 제어가 가능한 500kW 이상 규모로, 전력이 낮은 경우 계통불안정을 야기해 인근 전력망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지속발전성중(LVRT) 미구비 설비를 대상으로 발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끊임없는 연구로 지역 대표 건설업체로 거듭날 것”

비즈 & 피플 <4>(주)상원 광필정 사장

18년 전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출발...토목 등 영역 넓혀가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 개발...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선도



특히 토지변경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낮추는 비점오염저감시설 특허를 취득한데 이어 드론 프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업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임직원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전남의 대표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주)상원의 광필정(사진) 사장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로 환경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설업 분야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필정 사장은 지난 2006년 고흥에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인 (주)상원을 세우고 18년째 운영 중인 CEO다.

(주)상원은 환경영향평가 전문 업체로 시작했지만 환경사업은 물론 토목공사사업까지 이르는 종합엔지니어링·건설업 회사로 지역에 자리잡았

다.

광필정 사장은 “모든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환경, 재해영향평가, 토목설계 등의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조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조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원이 원스톱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남해 아난티 골프장’과 ‘사우스 케이프 골프장’, ‘와이엔텍 매립장 및 소각장’, ‘광양 성황근린공원’ 등이 있다.

(주)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 자리매김했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럼, 대기 측정장비, 소음측정장비 등 신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축적에 매진하고 있다.

(주)상원은 “일하기 좋은 기업”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직원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사내 동호회(골프·필라테스·꽃꽂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잊고 있지 않다. 사옥내에 조성된 화단과 연못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사옥 주변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광 사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환경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생각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하림 사외이사 재선임



송기진(사진) 전 광주은행장이 (주)하림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송 전 행장은 우리은행 영업지원단장과 부행장을 거쳐 2008년 6월 제10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했으며 2013년 6월까지 재임했다.

송 전 행장은 2020년 3월 하림그룹의 대표기업인 (주)하림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3년 임기를 마쳤으며, 2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3.92(+8.98)
↑ 코스닥	843.94(+10.43)
↑ 금리(국고채 3년)	3.299(+0.041)
↑ 환율(USD)	1302.70(+3.90)

조현준 효성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수상

조현준(사진) 효성 회장이 28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38회 2023년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영자대상은 1987년부터 국내 최대 경영관련 학술 단체인 한국경영학회가 시상해 온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경영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선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올해 수상자로 조현준 회장을 선정했다.

조 회장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스파텍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1위 제품을 기반으로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과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첨단 신소재 개발’,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효성의 미래성장까지 향상을 이끌



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 한국경영학회는 조 회장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몰입경영’으로 기업 경영의 본원적 목적을 산업계에 다시 환기하고, 기업들의 ESG경영을 선도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영자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고 판단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 회장은 “창업주이신 만우 조흥제 회장님과 제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님께서 어려서부터 세가지 중요한 경영의 원칙을 심어주셨다”며 “고객과의 신뢰 확보, 항상 세계 1등을 목표

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 경영원칙들을 기반으로 “고객의 목소리(VOC)를 경청하고, 세계일류제품을 많이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체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기술 조력자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도 멘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싱글러리티(Singularity)의 시대에서 고객을 다면적 다차원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한발 더 빠르게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고객몰입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은행 광주본부, 청소년 행복채움 금융교실 운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광주시 북구 본촌동 지산중학교 1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채움 금융교실은 지역 초·중·고·대학생과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저축과 투자, 용돈관리, 청소년을 위한 신용관리 등 금융기초상식을 설명하고 은행업무 소개, 통장 만들기, CD/ATM 체험

등 은행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날 강의는 ‘금융기초상식과 은행원’이라는 주제로 경제·금융 용어 퀴즈 맞추기, 위조지폐판별법, 은행원이 하는 일 등의 내용으로 구성, 청소년들에게 금융 업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또 금융교실에 함께한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돌핀 11기’는 교육내용에 궁금증을 가진 학생

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학생들의 진로선택 상담을 도왔다.

2012년부터 시작된 NH농협은행 광주본부 ‘행복채움 금융교실’은 현재까지 468회에 걸쳐 2만 3626명의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소비생활과 경제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00만원 상당 담례품 재기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9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